

KLPGA 전년 우승자 불참시 상금 반환하나?

의무 출전 규정 다소 완화하고 벌금 규모 현실화하기로... 국내 대회 출전 제한 주는 페널티 부과 방식으로 접근

#1. 지난 2012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을 지낸 김하늘은 미국 진출을 위해 2013년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퀴리파이널(Q스쿨)에 도전하려 했지만 전년도 우승한 국내 투어 일정과 겹쳐 포기했다. Q스쿨에 참가했다가는 우승 상금으로 받았던 1억20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늘은 결국 LPGA 투어 진출의 꿈을 접었다.

#2. 지난해 KLPGA 투어 7승을 거둔 박성현도 올해 아쉽게 LPGA 투어 진출을 선언했지만 개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뻥뻥한 LPGA 일정을 소화하면서 6개 국내 대회에도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박성현이 작년에 우승한 대회에 불참할 경우 우승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디펜딩 대회만 6개로 현지 적응에 애를 먹을 수 있다. KLPGA 정규투어 전년도 우승자가 대회에 불참할 경우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KLPGA 관계자는 19일 "디펜딩 챔피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승했던 대회에 불참했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 규정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LPGA 투어 규정(제3장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해 동일 대회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본인 결혼

또는 입원, 출산, 4촌 이내 친척의 사망 해외 투어 진출 등) 외에 불참하면 전년도에 받은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내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자 지난 2013년 타이틀 방어전 불참시 우승 상금의 50%를 벌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100%로 강화한 것이다. 정상급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칫 국내 투어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타이틀 스폰서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골프 대회 특성상 우수 선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진출한 선수들이 국내 대회를 병행하면서 무리하게 대회 출전을 강행하다보니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뿐더러 부상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다. LPGA나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도 유사한 상벌규정이 있지만 국내 규정과 비교해 너무나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 동안 KLPGA 투어에서 전년도 우승자가 타이틀 방어전에 참가하지 않아 벌금을 낸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들의 불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해외 투어와 비교했을 때도 벌금 자체가 가혹할 정도로 거액이다 보니 제대로 적용하기 힘든 유명무실한 조항이 됐다. 따라서 KLPGA는 전년도 우승자의 의무 출전 규정을 다소 완화하고 벌금 규모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를 앞두고 있는 박성현

벌금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 국내 대회 출전에 제한을 주는 식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KLPGA 관계자는 "해외 투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북, AFC 출전금지 결과에 CAS 항소절차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출전관리기구(Entry Control Body)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의견을 다시 묻는다. 전북은 지난 11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출전관리기구(ECB)로부터 전북현대의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부에 대한 재검토 사안을 전달 받았다. 이후 17일 까지 소명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의뢰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전북은 소명 자료 제출 이후 오늘 18일, AFC의 최종 결정인 2017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북은 출전 정당성 되찾기 위하여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항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부결정문이 필요하다. 소명자료 제출시 함께 요청했던 전북은 ECB로부터 이유부결정문을 받지는 못했다. 전북은 향후 CAS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김민근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 제13차 이사회 · 사업설명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제13차 이사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의결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시·군장애인체육회와 도내 장애인복지관 및 경기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도 장애인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해서 장애인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상생과 도약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손흥민, "희소병 앓는 한국인 어린이 도와주세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5)이 희소병을 앓고 있는 두 살 짜리 아이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두 살 짜리 한국인 아이 알리 김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영국 런던에 거주 중인 알리 김은 희귀병인 만성 육아중성지방(CD)에 시달리고 있다. 회복을 위해서는 골수를 이식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런던에 머무는 한국인 중 가장 유명한 손흥민이 팔을 걷어붙였다. 손흥민은 "알리가 런던 병원에 머물러 있다. 생명을 구하려면 이식이 필요한데 당신이 한국인이면 꼭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 메시지 말미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명시됐다. 알리 김을 돕기 원하는 이는 현지시간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국 뉴몰든 감리교회로 오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2분에 불과하다. /김민근기자



국민 10명중 6명 주 1회 이상 운동... 전년 대비 3.5% 증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 효과로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 10명중 6명은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4년 과반(54.8%)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6년 59.5%로 늘어났다. 전년 55.0%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0대는 63.1%가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해 다른 연령층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10대 여학생의 참여율은 54.9%로 2015년 35.2%보다 대폭 상승(19.7% 포인트)했다.

70대 이상 참여율은 55.3%로 전년 대비 5.6% 포인트 증가해 10대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은퇴기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이나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체조, 걷기 등에 대한 지원 탓으로 풀이된다. '한 달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응답자(70.5%)'가 참여하는 체육 종목(1~3순위)은 2015년과 동일하게 '걷기'(35.8%), '등산'(16.7%),

보타빌딩'(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은 퇴근 후인 '저녁 6~10시'로 참여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점심시간인 12시~오후 2시의 참여율은 4.0%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과 대비해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64.6%), '관심 부족'(37.7%), '체육 시설 접근성 낮음'(23.6%), '비용 부담'(17.3%) 등 순이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